

사순 2주일 감사성찬례

전례곡 A곡

시작예식 · 말씀의 전례

대 연 도	사제 구균하
죄 의 고 백	생 락
기 원 송 가기 리 에	기도서 245쪽
1 독 서	창세 17:1-7, 15-16	말 은 이
2 독 서	로마 4:13-25	말 은 이
성 시	시편 22편	다 함 깨
복 음 서	마르 8:31-38	사제 천용욱
설 교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제 천용욱
사 도 신 경	다 함 깨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생 락

성찬의 전례 · 파송예식

봉 헌 성 가	성 가 493장
성 찬 기 도	제2양식	기도서 260쪽
성 체 성 가	성 가 619장
축 복 기 도	집 전 사 제
파 송 성 가	성 가 481장

< 감사성찬례 및 주일봉사자 >

구 분	이번 주일(2월 28일)			다음 주일(3월 7일)		
	9시	11시	2시	9시	11시	2시
집 전	구균하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설 교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구균하신부
독 서	이정숙	박계자	박남미	전병도	김예중	박소현
교회와세상을 위한 기도	윤지훈	유인환	추서운	김경아	이성빈	박성준
대연도를 바칠 때는 생략						
십 자 가	이종한	윤용환		차기성	이용해	
청 소	사목단			안드레회 (1 조) 신환중 이종한 차기영 이성식 한재업		

< 다음주일 : 3월 7일, 사순 3주일(나해) >

독서/복음	출애 20:1-17 / 1고린 1:18-25 / 사린 19 / 요한 2:13-22		
설 교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		
성 가	대연도	봉헌 389장	영성체 616장 파송 409장

다음주일 암송구절

“이 성전을 허물여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 2:19)

시편 22편

-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 || 야곱의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돌려라.
- 이스라엘 후|손들아,
- || 주 앞에 모두 다 머리를 |조아려|라.
-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외면하지 않|고 오시고 || 탄원하는 소리 |들어 주셨|다.
- 큰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함도, 주께서 허락하|심이니,
- || 주님을 경외하는 무리 앞에서 나의 서원 |자카라|라.
- 이 몸은 주님 덕분에 살고 : 오고 오는 후손들 이 그를 |섬기며
- || 그 이름을 세세대대로 |전하리|-라.
- 주께서 건져주신 이 모든 |일들을
- || 오고 오는 세대에 길이 전|해주시|이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성령께
- ||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 리-고 || 영|원히 아-멘

기도의 향

- + **교회를 위하여**
 -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 아프고 약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기 위하여
 - 배우고 익힘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 + **가정을 위하여**
 - 모든 가정이 하느님 사랑 안에 화목하길 위하여
-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 남북한의 평화를 위하여
 - 가난하고 고령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 **환자**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강보경 주창순 김대옥 권영달 김경옥 박도옥 이명길 이순환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중주 신화숙 김예중 김난희
- + **군복무** 박정모 전호중 전필중 김관우 조용현 이준형 송준석
- + **유학** 이재성(독일)
- + **장기출장** 박지혁(미국) 김보선(중국) 김슬기(미국) 이재동 윤상기(미국) 고기범(중국) 서한일(캐나다)

교 회 소 식

<주일 감사성찬례 참여를 위한 지침>

- 1) 성당 입장 전에 발의,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검사하고, 참석자 명단을 꼼꼼히 적습니다.
- 2) 성당 입장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을 씻습니다.
- 3)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성찬례를 드립니다.
- 4) 영성체는 성체만 영하고 보혈은 영하지 않습니다.
- 5) 예배 전과 후에 교회 안팎을 소독합니다.
- 6) 예찬과 단체별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 방역소독을 준수하여 주일감사성찬례는 세 번에 나눠 봉헌합니다(오전9시/오전11시/오후2시). 성전 안에서는 표 시된 좌석만 이용해 주십시오.

◆ 사순절 특별감사성찬례

일시 2월 17일~4월 3일(월~토, 매일 오후8시)
장소 2층 성전(교회 유튜브 채널로 동시 실시간 중계)

◆ 관구 '사순절 회향의 헌금'

관구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는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4월 4일부활주일(1차) 5월23일(2차)성령강림주일까지) 사무실 앞에 '회향의 헌금' 상자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365 성서통독운동'

성서통독을 돕기 위한 '365 성서통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요. 매일 전달되는 문자와 카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재 10,000원)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기도 노트

사순절과 부활절을 위한 기도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한권씩 가져가시고 책값은 헌금에 주십시오. (권당 10,000원)

◆ 어린이 교회학교 책가방 축복식

오늘(28일 사순2주일) 교회학교 감사성찬례(오후2시) 중에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책가방 축복식과 신앙교사 임명식(정희진 프란체스카)이 있습니다.

◆ 강남교구구 성김이 리더십교육

일시 2021년 2월 28일(주일) 오후 3시
방식 온라인 초대 및 사전녹화 병행

◆ 3월 교회위원회-활동단체장 연석회의

일시 3월 7일 11시 성찬례 후

◆ 성당청소 안내

다음주(7일)부터 단체별 성당청소를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순번에 따라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달력과 교회 수첩

달력과 교회수첩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좌 사제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다시마 1kg(1박스) 17,000원 -미역 1kg(1박스) 28,000원
-참기름 1병 10,000원 -들기름 1병 9,000원
-엿기름 600g 4,000원 -멸치 1박스 17,000원
-매실액기스 2L 10,000원 -새우젓 2L 25,000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구정애 박소현(3/1일) 황선진 김미란(2일) 박영자(3일)
한광성 권술라리(4일) 이연희(5일)

+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안유아 안유현 이제이 천윤우
중학교 입학 김유현
고등학교 입학 신동훈 윤종인 이규원
고등학교 졸업 한주엽 이유현
대학 졸업 신승지

◆ 알림

* '매일기도와 묵상'에 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비절감과 편의를 위해 문자를 받으시는 교우님들 중 카톡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보좌사제(구균하 신부)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Youtube(유튜브) 채널 구독 협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순절동안 매일 저녁8시 실시간 성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공유된 링크를 통해 구독해주시고 홍보해 주십시오. (Youtube에서 '대한성공회영등포교회' 검색)

성공회 영등포교회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매일기도와 묵상', '365성서통독'**에 참여합니다.

-**아침기도나 사순절특별성찬례**에 참여합니다.

-**평소보다 절제된 생활**을 위해 힘씁니다.

-**어려운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헌합니다.

-**기도와 신앙실천**으로 은총이 넘치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 신앙생활 안내

사순절은 기도와 극기와 절제의 생활을 통해 말씀을 경청하고 스스로를 성찰함으로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절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1. 시간을 정해 **'매일기도와 묵상', '365성서통독'**에 참여합니다.
2. 매일 새벽 5시 50분에 드리는 **아침기도나** 저녁8시에 드리는 **사순절특별성찬례**에 참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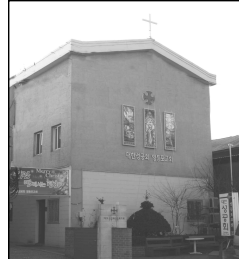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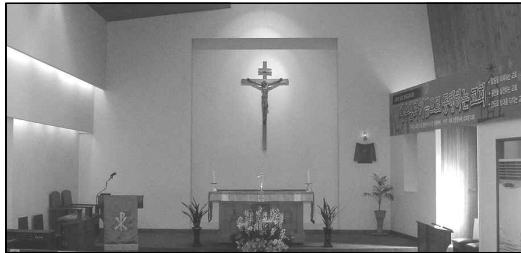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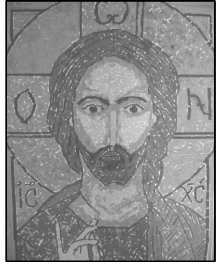
3. 평소보다 소박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을 위해 힘쓰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헌합니다.

4. 이미 하고 있거나 잘 할 수 있는 **기도와 신앙실천**을 통해 더욱 은총이 넘치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와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구하는 복된 부활절을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 분	참 석	봉 헌	금 액
감사성찬례	월정실일조		2,160,000
주일	97	주정헌금	510,000
사순절평일	70	주일학교	
아침기도	24	감사헌금	1,460,000
		성소계발	
합 계	191	합 계	4,130,000

구 분	참 석	봉 헌	금 액
월정실일조	구아랑 구정애 김용학 김재현 김종희 박영순 서남철 송미경 신명식 유혜경 윤선구 윤영자 윤용환 이경희 이복연 이종훈 전병도 천유성 정준희 한재업		
주정헌금	김경아 김예담 김요한 박남미 박성준 박소현 박종영 성우진 송미경 송미정 한윤락		
감사헌금	구균하(부임10만) 김복근(별세30만) 김용학(생활5만) 박성준(신년3만) 서세홍(설날10만) 송미경(생활/사순8만) 신명식(설날5만) 신희숙(건강10만) 안효식(설날3만) 윤영자(사순1만) 윤용환(설날10만) 이광자(퇴직4만) 이보연(생일/사순15만) 이복연(사순3만) 이용해(일반5만) 이종한(사순5만) 장기환(생활10만) 전병도(사순3만) 정상임(사순5만) 차기성(사순1만) 한지원(생활5만)		
특별헌금			
성소계발			



성공회

영등포교회

성공회(聖公會 Holy catholic church)는 하나이요, 거룩하고(聖), 보편되며(公), 사도로부터 이어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會)입니다. 성공회는 믿음의 기초를 성서에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성서적 전통과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로부터 1890년 선교된 대한성공회는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신자는 164개 국가에 약 1억 명입니다.

성공회 영등포교회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남교무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1966년 노동자를 위한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변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선교정신은

- 첫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둘째, 새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합니다.
- 셋째,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넷째,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섯째, 창조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의 다섯 가지를 지향합니다.

1.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가 되는 교회
2.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몸소 증명하는 교회
3. 아프고 약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보살피고 돌보는 교회
4.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5.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일 및 주간 모임

-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주일 및 주간의 모든 모임은 잠정 중단합니다.
- * 주일 감사성찬례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크리스토퍼

2021 교구표어 “친교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제자공동체”

교회표어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은사공동체”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앞에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보고 대뜸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1:17) 고 하셨다지요. 예수의 초대인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라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오직 고기를 잡는 일에만 매달려 살던 베드로는 자신이 겪어 온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가늠해 볼 때 평생 어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때때로 거센 풍파와 싸워야만 하고 어쩌다 운이 좋아 만선의 기쁨을 맛보는 날도 있겠지만 대개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봐야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가 고작이었지요. 그렇게 살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예수의 제안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슴 설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말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나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과 그의 동행은 베드로에게 신나고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며 오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넉넉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면서 곧 새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은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거침없는 발길을 이어가던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예수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 죽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이야기 끝에 다시 살아가리라는 말씀도 있었으나 당장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는 말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나섰고 그 결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전혀 겪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새 세상이 열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하던 고달프고 힘겹지만 했던 이 세상이 끝장나고 새 세상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는 자신도 한 자리 크게 차지하고 뽐뽐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겠지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다니요. 도무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펄쩍 뛰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를 막아섰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마르8:35)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지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이지요. 베드로가 아직은 ‘사람을 낚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사순절의 은총을 새기고 있는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 오세요. 나와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합시다.” +

서울교구장 관할사제 보좌사제 신자회장 사제회장 보혈조력	이경호 주교 천용옥 010-4123-7357 구균하 010-3460-7382 김중희 010-5472-0529 차기성 010-4339-5233 박혜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유혜 이종한 차기성	원로위원 박도목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중용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주경민 한재업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교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전 화 2671-6290 2633-8877(팩스점용) 홈페이지 www.stchristopher.or.kr e-mail ydp@anglican.kr
은행계좌 기업은행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083-082654-04-015			